

멈춤

지자체 '설 명절 모두 멈춤' 호소

자녀 대신 세배하는 읍·면장 부모 안부 살피는 '사랑의 콜센터' 방문객 무료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

“이번 설에는 읍·면장이 대신 세배 드립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전국에서 육지에 위치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장흥군 등 전남 지자체들이 ‘설 명절 모두 멈춤’을 호소하고 있다.

◇장흥군 ‘J-방역’ 비상근무체계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이뤄 낸 것은 주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해도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군은 군민이 외지 출타 후 돌아오거나 외지에 있는 자녀가 고향을 방문할 때 대비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방역에 비견되는 ‘J(정남진 장흥)-방역’을 구축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설 연휴 동안 장흥종합병원과 장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한다.

◇완도군 ‘사랑의 콜센터’
완도군은 지난달부터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랑의 콜센터’는 호응이 높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향우들이 각 읍·면에 ‘부모님 안부 살



완도군은 설 명절 '모두 멈춤 운동'으로 읍·면장 세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에 설치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피기’를 신청하면 읍·면장이 직접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설 선물과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설이 가까워지면서 ‘모두 멈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향우들도 늘고 있다. 3000명에 달하는 군민과 향우들이 동참했다. 이 때문에 각 읍·면장은 틈나는 대로 세배를 다니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읍·면 직원들은 ‘부모님 안부 살피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각 가정을 방문해 자

녀들과의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온라인 성묘나 설명절 음식나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완도군 약산면 한 어르신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좀 허전했는데 이렇게 면장님과 직원들이 직접 세배를 하고 말벗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강진군 “불효자는 옵니다”
가족 간 코로나19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 고향 방

문을 자제하는 현수막이 동네 어귀에 걸렸다.

강진군 병영면청년회는 4일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에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방역 지침에 따른 호소다.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방문을 극구 말리는 동네 어르신들이 안타깝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나눔

지자체·기업 '설 착한 선물 나눔'

전통시장 장보고 상인 위로 축산농가 돕기 고기 소비 캠페인 성금 모아 구입한 농수축산물 취약계층·복지시설에 전달

명절을 앞두고 전남지역 지자체와 기업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웃을 챙기는 ‘설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일과 2일 굴비골영광시장과 터미널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성 영광군수와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 등은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또 청년창업 점포에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안군은 축산물 소비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설명절 공직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은 목포무안신안축협과 연계해 삼겹살·복살을 시중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운동을 통해 공직자들은 돼지고기 1957kg(3900만원 상당)을 구매 신청했으며, 오는 9일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빛본부는 지난 2일 굴비골영광시장에서 ‘노·사 합동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했다.

노사는 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지역경제



김지용 광양제철소장이 직원들과 함께 지난 1일 광양읍 광양5일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노사는 지난 2일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으로 1800만원 상당의 명절물품을 구매했다.

구매한 물품은 영광군과 고장군 소재 22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으로 전달했다.

이승철 한빛원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임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지난 1일 광양읍 광양5일시장을 시작으로 5일까지 부서별로 중마시장, 옥곡5일시장, 광영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광양5일시장을 찾은 제철소 설비기술부 직원들

은 명절 음식에 들어가는 채소와 나물 등을 주로 구매했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직원들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겠다는 마음을 상인들에게 전했다. 시장 상인들도 직장인들의 시장 방문을 환영했다.

광양제철소는 임직원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행사를 매년 명절때마다 지속하고 있다.

김지용 광양제철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광양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5일간 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설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은 성금을 모아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설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함에 따라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설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농수축산물로 지인과 친지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자발적 나눔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각 부서에서도 각종 기념품을 지역특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대체해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이준원 기자 jylee@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청와대(5년)·강원랜드(3년) 납품점

다향굴비

대표 박희순·이용철

우리 업체는 100% 국내산 참조기만 엄선하여 최상의 품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 천일염(5년 이상)으로 염장하여 항상 고객님을 위해 더욱 맛 좋은 굴비를 만들겠습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는 *Best*

코로나 극복하는 명절!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주문하러가기

굴비 (가정용)



70,000~130,000원

굴비 (선물용)



100,000원부터~

보리굴비



80,000~100,000원

문의 ☎ 061-356-6798

☎ 010-5356-4990